

전남도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에 1602억 투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친환경농업직불제·유기농업자재 지원 품목 다양화·판로확대·농가 경영안정·소비자 신뢰 확보 증진

전남도가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1602억원(자부담 263억원 포함)을 투입,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2025년 친환경농업 주요 정책 방향은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 ▲과수·채소 등 품목 다양화 및 농가 경영안정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 ▲안정적 판로 확대

등이다. 분야별로 우선 유기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320억원), 토양개량제 지원(199억원), 유기농업자재 지원(197억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83억원) 등

이다. 또 친환경농업직불제(175억원), 인증비 지원(95억원),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30억원) 등 친환경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고 품목 다양화를 위해 61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왕우렁이 공급(40억원), 유기농 벼짚 환원사업(18억원), 비가림 하우스 지원(11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75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23억원), 학교급식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18억원), 마케팅 및 판촉 지원

(7억원) 등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업은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전남 친환경농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0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원 규모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생산·유통과 안전한 먹거

리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용자 신청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다. 용자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5억원, 유통업체는 10억원이다. 지원 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운영자금은 친환경 배·고구마 등 원료 구입, 버섯 종균 구입, 포장디자인과 포장재 제작, 판매장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난임 부부 지원 대폭 확대...저출산 적극 대처

소득·연령 무관 난임시술비 30만~150만 차등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정·난관 복원시술비·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신설

전남도가 난임 부부를 위해 소득과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 연령,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30만~150만원의 시술비를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정관복원 최대 50만원, 난관복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난소나 고환 절제 등으로 불임이 예상되면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

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남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해 찾아가는 방문 상담, 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 난임·임신·출산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

한다. 전남도는 가임력 증진을 위한 많은 시술이 비급여 항목임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정부 지원사업인 양방 난임 시술비 지원에 비급여 시술비를 포함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난임 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만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의 난임 환자는 6500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나, 난임시술비 등 지원을 통해 매년 20~30%의 임신 성공률로 출생아가 태어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 남평~화순 간 국지도 확포장 개통

전남도가 나주 남평~화순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난달 31일 전면 개통했다. 이번 확·포장공사는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 간 연결을 위해 총사업비 125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전체 연장 6.85km, 4차선으로 한층 넓어지고 안전한 도로로 탈바꿈했다. 주요 시설물은 총 7개 교량과 1개 터널이다. 도로 이용객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수단이 되도록 건설했다. 나주 남평과 화순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도로 개통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지역 특산물 판매, 관광업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가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평~화순 간 국지도 55호선 개통은 단순한 도로를 잇는 것을 넘어, 지역과 사람, 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도서관 ‘올해의 책’ 선정

‘여기는 괜찮아요’ 등 4권

전남도립도서관은 도민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여기는 괜찮아요’ 등 2025년 전남도 올해의 책 4권을 선정했다. 올해의 책 선정은 도민과 전남지역 도서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책을 대상으로 지역 작가와 교수, 사서, 교사 등 16명으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 심사와 온라인과 현장 도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도 지난 2015년 전남도립도서관의 올해의 책에 선정된 바 있다. 선정된 도서는 문학, 비문학, 청소년, 어린이 4개 분야 1권씩이다. 문학 분야는 전성태 작가의 ‘여기는 괜찮아요’가 뽑혔다. 분단, 여순사건, 세월호 참사 등 현대사의 사건을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오늘을 삶을 돌아보게 하는 소설이다. 비문학 분야에선 수많은 뉴스와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하는 김인정 저널리스트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가 선정됐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추정경 작가의 ‘열다섯에 곰이라니’가 이름을 올렸다. 정체불명의 현상으로 갑자기 동물이 되어버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춘기 아이들의 성장기를 담은 소



설이다. 어린이 분야는 김다노 작가의 ‘최악의 최악’이 차지했다. 열세살 아이들이 사계절을 겪으며 머물렀던 사랑, 우정, 성장하는 이야기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동화다. 전남도립도서관은 이번엔 선정된 올해의 책 ‘시군 순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도민 책 읽기 운동을 펼치고, 하반기에는 ‘독서왕 선발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시행

도, 2020년부터 누적액 136억

전남도가 영농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42만7000농가, 134억원에 달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 굴착기는 9만4000원에서 4만7000원, 트랙터(35마력 기준)는 5만5000원에서 2만7500원, 관리기는 90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에서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75개소에서 1만3000여대의 농기계를 구비해 농가에 임대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RISE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전남도인평원, 기본계획 공유 등...RISE 사업 성공적 추진 다짐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 전남RISE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2025년 RISE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기본소양 함양과 소속감 부여를 통한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전남 RISE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조직 청렴문화 강의, 이해충돌방지법 동영상 시청 등 RISE사업 담당자가 갖춰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규 임용 직원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RISE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025년부터 시행하는 RISE사업은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기존에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재정사업 행·재정적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 RISE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상반기 지원대학 선정평가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RISE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도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리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